

北 정권 70주년 ‘대사면’으로 체제 굳히나

(9·9절)

비핵화·북미관계 변화 속 김정은 입지 강화 노릴 적기 정치범 포함 여부 주목

북한이 오는 9월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3년 만의 ‘대사(大赦·대사면)’를 단행하기로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6일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대사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석방자들의 생활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정령은 밝혔다.

북한은 광복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이 있었던 2012년 등 주요 국가기념일의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대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그동안의 대사면은 체제 공고화라는 ‘정치적 효과’가 필요한 타이밍에 이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일례로 2012년 대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직후인 그해 1월 발표됐다. 당시 정령은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대를 이어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선대 지도자 김일성-김정일의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번 대사면 결정도 북한이 ‘대(大)경사’로 기념하겠다고 공언한 정권 수립 70주년(9·9절)을 앞두고 내부적 결속 강화

를 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특히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체제 충성도가 약화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통치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대사면을 통한 ‘사회적 화합’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단결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정령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부각하면서 이런 의도를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주민생활 향상과 체제 결속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자상’ 부각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인권 개선을 보이려는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대사면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라고만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각종 이탈행위를 저지른 일반 사범 이외에 정치범들도 ‘파격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의 죄목으로 억류해 온 한국인들을 이번 사면을 통해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억류자들에게 대대사면 후 송환이라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41〉 환관 이보국

이보국(李輔國, 704-762)은 숙종 때의 환관으로 숙종과 대종 시대 커다란 권력을 휘둘렀다.

본명은 정중으로 어렸을 때 현종의 측근 환관 고력사의 시종으로 입궁하였다. 외모가 추했지만 두뇌회전이 빨라 상황을 기만하게 파악했다. 40이 넘어서 마구간 장부를 정리하는 말직을 맡았다. 고기를 멀리하고 염불하며 경을 외워 궁중에서 어질고 욕심이 없는 환관으로 평가받았다. 이형이 현종의 태자가 되자 측근이 되었다. 756년 안녹산이 낙양을 돌파해 장안으로 진격하자 현종은 서쪽으로 피난을 갔다. 장안 외곽 마외에서 정예군을 이끈 태자가 용무대장군 진현례와 쿠데타를 도모했다. 그가 중간 연락책을 맡았다. 재상 양국충과 양귀비를 죽이고 태자

명이 후위토록 해 암살에 대비하였다.

상황은 장경루를 좋아해 자주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하루는 사천성 감남의 관리가 누각으로 올라가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이를 숙종에게 허위 보고했다. “상황께서 날마다 외부인들과 교통하고 있으며 진현례와 고력사가 옆에서 부추깁니다” 숙종의 의구심이 깊어졌다. 결국 상황은 흥경궁을 떠나 감로전으로 옮겨 거의 유폐생활과 다름없이 살게 되었다. 고력사도 귀주로 귀양조치 되었다.

761년 병부상서를 겸하였다. 그는 더 나가 재상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숙종은 “경의 공로를 가지고서는 어느 직책인들 할 수 없겠소만, 조정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아직 동의하지 않으니 어찌하겠소.” 그가 북아 배면 등이 자신을 천거토록 사주하였다. 그러나 배면은 “내 팔을 자를 수는 있어도

美 보호무역 견제 중국-유럽연합 베이징서 회담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더 균형 잡힌 무역을 추구하기 원한다고 16일 리커창(가운데)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밝혔다.

이날 리커창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오른쪽) 집행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이같이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또 중국이 EU와 투자조약 협상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양측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병권·사법권 장악했지만 자객에 피살

파가 실권을 장악했다. 태자는 영하성 영무에서 숙종으로 즉위하고 그는 실제로 부상했다. 원수부 행군사마가 되어 군권을 장악했으며 이름도 보국으로 바꾸었다.

757년 장군 광자의, 이광필, 복고희 등의 전횡에 힘입어 장안과 낙양이 수복되었다. 숙종과 현종은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상황이 된 현종이다시 권력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과 그 측근들을 철저히 감시했다. 흥경궁에 있던 현종을 태국궁으로 옮겨 감시를 강화했다. 어느날 상황이 궁안을 순시하다가 예무문에 이르렀는데 그가 병사 5백명을 거느리고 가로막았다. 상황의 측근 고력사가 이를 보고 소리치며 제지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다.

숙종은 그에게 조서와 명령을 선포해 전하고 군대에 관한 일을 모두 맡겼다. 제척(制勅)은 반드시 그의 서명을 거쳐야 시행되었다. 비밀경찰 수석 명을 두고 향간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도 관찰하고 조사하였다. 주요 판결도 그의 의견에 따라 시행되었다. 일반 환관들은 감히 그의 직책을 말할 수 없어서 오랑(五郎)이라고 칭하였다. 산둥의 귀족 이규는 그를 보면 자제로서의 예를 갖추고 오부(五父)라고 불렀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관리는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궁을 나갈 때는 수백

재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요”라고 단호히 거부해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숙종이 위독하자 황후 장씨는 태자 이예를 불러 “지금 주상이 병중인데 이보국은 몰래 정원진과 난을 일으키기 모의하니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 태자가 뜻을 따르지 않자 황후는 셋째 황자 이계를 옹립하기 위해 환관 단항준을 끌어들이 태자와 이보국을 죽이려 하였다. 이보국과 정원진은 군대를 이끌고 인덕전으로 가 월왕과 환관 단항준 등 100여명을 붙잡아 이를 가두었다. 월왕 이계, 연왕 이현, 장황후를 모 두 죽였다. 숙종이 죽자 태자가 대종으로 즉위했다.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한 정원진은 대판원수 행군사마가 되어 그의 권한을 빼앗기 시작했다. 행군사마, 병부상서를 파직하고 궁궐 밖에서 살도록 했다. 중서령을 파직하고 작위만 박육왕으로 올려주었다. 그가 사려하며 울며 말하기를 “이 늙은 노복이 황상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니 청컨대 지하에 들어가 먼저 돌아가신 황제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객이 그의 집에 들어가 죽였다. 그의 머리와 한쪽 팔이 없어졌다. 자객은 머리는 변소에 버리고 한쪽 팔은 현종의 능묘 앞에 가져다 놓았다. 대종은 나무로 머리를 깎아서 그를 장사지내고 태부의 직함을 추증하였다.

美 폼페이오 “비밀 우라늄 시설 알고 있다” 北 김영철 추궁

日 신문 보도... 金 전면 부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직접 추궁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북수의 한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할 때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사실 여부를 추궁했다.

이 질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핵시설과 핵탄두를 은폐하고 있다”면서 “합흥 미사일 공장의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데, 이는 북미 관계에서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모든 사실이 아니다. 우리들은 은폐하거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한 적이 없다”면서 “합흥 공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확장 공사가 아니라 장마에 대비한 공사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면서 조기 비핵화 착수를 압박했고,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비핵화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은 채 비핵화 의사만 재차 밝히면서 종전선언의 조기 발표

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2010년부터 영변 시설의 배 이상 능력을 가진 우라늄 농축시설을 ‘강성’에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13일 강성이 평양 외곽의 천리마구역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후인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몽칩시다!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뜨면 중개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중개사님! 실장님!들이 많습니다.

(주)가은 부동산 중개법인에서는 개발지, 시행처, npl, 급매물 등 계약성사가 빠른 현장정보를 제공하며, 20여명의 직원들끼리 손님과 매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함께 파이팅 하실분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연락처 010-2800-3589

